

삼성광주전자 생산물량 내년 30% 해외로 이전

협력업체 경영악화 등 지역경제 먹구름

삼성전자의 해외 현지화 전략에 따라 삼성광주전자 생산물량 중 30%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갈 계획이어서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4일 삼성광주전자와 협력업체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삼성전자에 합병되는 삼성광주전자는 삼성전자의 해외 현지화 전략에 따라 내년도 생산물량을 올해보다 30% 낮게 잡고, 감소분을 멕시코와 폴란드,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삼성광주전자는 내년도 경영계획을 통해 올해 생산물량이 33% 증가한 세타기의 경우 내년에는 30% 줄여 2009년 수준만 생산키로 했다. 감소한 물량 30%는 멕시코 생산법인과 폴란드 생산법인으로 이전하게 된다. 전년 대비 25% 늘어난 냉장고는 내년엔 생산물량을 15% 줄여 이를 멕시코와 폴란드로 옮기고, 청소기는

지가형 모델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시범 가동하는 베트남 생산법인에서 생산하게 된다.

삼성광주전자는 지난 10월 이같은 경영 계획을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올해 생산물량이 30% 이상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를 감당하기 힘들고, 40%가량 오른 물류비도 부담돼 수출 물량 일부를 해외 현지법인으로 빼고 왔다고 밝힌 것으로 협력업체 대표들은 전했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올해 물량이 30%가량 늘어나면서 생산성 제고와 근무시간 연장으로 감내해왔다"며 "이로 인해 회사와 협력사 직원 모두 지쳐 현실적으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물량 감소가 삼성광주전자의 생산능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며,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전환해 매출 4조원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가 불가피해 울상이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삼성에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물량이 30%가량 준다니 가슴이 답답하다"며 "회사 생존을 위한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한숨 지었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는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대기업에서 협력업체의 경영시스템 관리, 기술 지원,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광주전자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급등, 환율 하락 등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삼성광주전자는 매출 3조469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조3657억원)보다 28.7% 증가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에서는 26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그대들 있어 참 따뜻한 세상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빛고를 노인복지재단 '빛고를 시니어 모델' 15명이 14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귀일 요양원을 깜짝 방문해 장애인들과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이들은 직접 담긴 김치 50kg과 목도리·장갑 등을 선물한 뒤 원생들을 위한 작은 캐럴 음악회를 열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부천사' 김장훈 10억원 또 기부

가수 김장훈이 연말을 맞아 사회 각계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소속사 공연세상이 14일 밝혔다. 김장훈은 장애아동전문병원 건립 기금에 2억원, 자신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반크와 카이스트에 각각 2억원을 기부한다.



수에게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비로 1억원을 쾌척한다. 이와 함께 경제대 고지도박물관에 1억원, 또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에 고지도와 역사적자료 구입금으로 1억원을, 해외 유력지 등에 한국 광고를 게재해 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

각종 행사 출연비를 모아 기부한다고 전했다. 김장훈은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배운 온정에 어떤 재단의 잘못과 비리가 잔물을 끼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하지만 기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지 재단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선 아동용품 수만점 또 기증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중년 남성이 지난해 이어 또다시 아동용품 수만점을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4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광주에서 아동용품·스포츠용품·패션 잡화류를 취급하는 A씨가 지난 7일 아동용 실내화·속옷·장난감·문구 등 19종류 3만7164점을 북구청에 기탁했다는 것이다. 1.5

t.화물차 4대 분량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아동용 실내화 등 24종류 5만점의 아동용품을 북구청에 기탁한 뒤 "어려운 이웃에 전해 달라"는 말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진 주인공이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많은 양이 아니어서 미안하다. 연말연시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데 써 달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북구는 남·여 아동용품을 따로 분류한 뒤 어린이집·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 등지에 전달했다. 광주시 북구 성유석 중흥3동장은 "숨어서 하는 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일깨워준 일"이라며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때여서 더욱 반가운 일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슬로시티 4곳 올해 100만명 다녀갔다

올 한해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 장흥 유치·장평, 담양 창평 등 전남도내 4개 슬로시티를 다녀간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슬로시티 4곳이 '빨리빨리'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차별화된 생태녹색 관광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올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신안군 증도는 70만7850명이 다녀가 가장 많았고 ▲완도 청산도 20만 3272명 ▲장흥 유치·장평 9만5000명 ▲담양 창평 7만2061명 등 107만 8183명에 이른다. 지난해(62만5796명)에 견줘 45만2387명이 늘어났다.

슬로시티 4곳 방문객은 ▲2007년 25만4866명 ▲2008년 42만9610명 ▲2009년 62만5796명 ▲올해 107만 8183명(11월 15일 기준)을 기록하는

등 매년 60%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도는 슬로시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데다, 증도 대교 개통으로 접근성도 높아지면서 지난해(37만2730명)에 비해 관광객 수가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슬로시티 마을에 대해 3년간 국비와 지방비 147억원을 투입,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한옥 민박을 건설하는 가 하면, 슬로푸드 전시 사업과 1박2일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총력을 쏟아왔다.

전남도 최동호 관광정책과장은 "슬로시티 4곳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객들과 주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전남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식 모집 12월 17일~22일
대입 원서접수 12월 1일~7일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안정된 노후 설계

농지연금과 함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으로 보장받는 농지연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상담문의 1577-7770

농지연금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자격: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소유농지 3만㎡ 이하